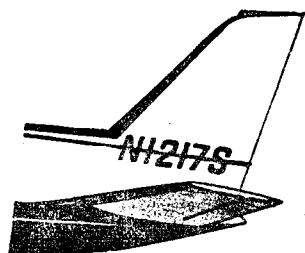


海外旅行 ① 見聞記



축산의 나라 호주 견문기

김 권 철
〈농림부 중소 가축계장〉

오스트리아는 세계적으로 축산국가로 알려져 있고 특히 양모와 양고기 생산의 총 본산으로 알려져 있는데 내가 오스트리아에 갔던 목적은 양계에 관한 수련을 하기 위해서였으므로 나 자신도 처음엔 약간의 회의감도 가지고 있었다. 과연 오스트리아의 양계산업이 어느 정도로 발전되어 있을까? 배울 만한 가치가 있을까 하고……

그러나 우리나라의 축산발전을 위하여는 외국의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며 그곳에 가면 양계 이외의 축산에 관하여도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70년 11월 말경에 출국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고 훈련받는 여가에 홀스타인협회(이곳에서는 “후리지안클럽”(Friesian cattle club)이라 한다.)와 연락하여 큰 낙농목장과 인공수정소 및 시골에서 열린 가축품평회등을 구경할 수 있었다. 이곳 낙농에 특히 관심을 가진 이유는 우리나라가 매년 캐나다에서 젖소를 사오는데 산지가격이 매년 오르기 때문에 만일 이곳에서 싸고 좋은 소를 사올 수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내가 참가한 훈련의 정식명칭은 코롬보계획의

일환으로서 “가금에 관한 국제훈련”으로 되어 있었는데 동 훈련에 참가한 국가는 아세아와 아프리카의 후진국들로서 15개국에서 23명이나 되었다.

내가 오스트리아에 도착한 때는 70년 11월 말이었었는데 3개월간은 훈련을 제대로 받기 위한 준비로서 영어공부를 했고 본 과정이 3개월이었는데 시작은 호주의 남쪽 지방인 남오스트리아주(South Australia=S.A.) 수도인 “아데라이데”라는 아름다운 곳에서 부터 계속 북상하도록 일정표가 짜여져 있었는데 이유는 항상 좋은 기온을 유지하면서 호주 각처의 양계업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다. 즉 호주는 남반구이므로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남쪽 지방에서 부터 겨울이 찾아 오는데 우리가 3월 중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곳의 늦여름인지라 곧 가을과 겨울이 단차오므로 북진하게 되면 항상 가을 기분만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일행중 대부분이 열대 또는 아열대지방에서 온 사람들이므로 추위에는 매우 약한 편이다.

본 과정이 시작된 후 1주간은 과정 소개와 함께 개최식이 있었으며 개최식때 참가국들의 국

기가 책상위에 꽂여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태극기가 꽂여 있어 몹시 착잡한 감정과 함께 국가대표로서의 긍지를 잊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S.A주 정부차관의 환영겸 축하인사가 끝난 후 각국의 참가자들이 자기나라의 양계업에 관하여 간단히 소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유는 참가국들의 양계현황과 문제점을 자기네들이 파악해야만 거기에 맞도록 수련도 시키고 올바른 방향을 알게 될 것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는 전적으로 타당한 것이라 생각했지만 아직 짧은 내 영어 실력으로 어떻게 한국의 양계업을 제대로 소개시킬 것이며 전 참가국의 양계업을 파악할 수 있을까 하고 무척 긴장하면서 내 발표순서를 기다렸는데 아무나 희망자가 차례로 발표하되 제한된 일정때문에 발표시간이 10분~15분으로 제한하고 5분~10분간 질문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참가자들도 그들 나름대로 자기나라에서 선발된 양계전문가이고 또 호주 각주의 노련한 양계전문관리(양계과장)들이 듣고 질문하기 때문에 나로서는 더욱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의 상황과 이야기는 뒤로 미루고 여러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호주에 대한 몇가지 배경을 설명드리고자 한다. 이 설명이 끝나면 그곳의 낙농과 기타 축산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고 참가각국의 상황을 기록에 남은대로 말씀드릴 후 주 목적이었던 양계에 관한 훈련내용을 소상히 소개해 드릴까 한다.

호주지도 및 중요도시



1. 국토의 구성

6개주, 2개직할령, 1개 보호령 및 남극으로 되어 있는데 6개주와 2개 직할령은 위의 지도와 같고 각 수도가 표시되어 있는 바 보호령은 뉴기니아로서 U.N의 결의에 따라 신탁통치중이며 남극은 이에서 제외코저 한다. 6개주가 모여 연방정부를 형성했는데 연방정부의 수도는 캔베라이며 시드니와 멜본에서 서로 연방정부 수도를 유치하려 하여 그 중간지점을 택하여 수도로 정한 후 직할시를 만들고 북호주주(북호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농용으로는 쓸모 없는 땅인지라 그곳의 통치를 연방정부가 직접 관할하기로 하였다 한다.

2. 행정

양대정당이 있고 내각책임제인데 연방정부는 재정권과 함께 외교권등을 가지고 있고 기타는 각주가 독자적인 주법에 따라 행정을 수행해 가고 있다. 완전 지방자치이며 집권당인 자유당과 야당인 노동당외에 농민당이 있는데 현 의석상 노동당이 자유당보다 의석이 많지만 자유당과 농민당이 결속하므로써 집권당이 되었고 따라서 농민당의 입김이 세고 각종 농업정책에 농민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다고 한다.

3. 호주의 토지적 조건

개 위 치

동 경 113° 9' ~ 153° 39'

남 위 10° 41' ~ 43° 39'

※ 남북간 최장거리—2,300마일 (3,680km ; 약 9,200리).

※ 동서간의 최장거리—2,500마일 (4,000km ; 약 10,000리).

내 국토면적

약 3백만 평방마일로서 아라스카를 제외한 미국의 크기와 거의 같고 우리 나라와 비교할 때

한국은 약38,500평방마일 (98,500km²) 이니 호주는 한국보다 약77배가 큰 셈이다.

(대인 구)

- ① 총인구 (69년 현재) : 1,230만명
- ② 인구의 분포상태 (66년 현재)

(배 강우량 및 기온)

주요도시명	해발고도 (m)	강우량 (mm)			기온 (°C)			
		평균	최고	최저	평균최고	평균최저	최고	최저
시드니	41.4	1,212	2,193	584	21.3	13.5	45.3	2.0
멜본	34.2	659	966	332	20.0	10.0	45.5	-2.7
부리스반	40.2	1,135	2,242	411	25.5	15.1	43.2	2.3
아테라이페	42.0	530	786	288	22.5	12.4	47.6	0.0
퍼스	63.0	884	1,338	508	23.1	13.0	44.5	1.2
호버트	53.1	632	1,102	392	16.5	8.0	41.2	-2.4
칸베라	571.8	625	1,061	302	19.3	6.2	39.7	-8.7
다윈	29.1	1,542	2,306	892	32.5	23.5	40.5	10.0

본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고기온이 40°C 이상을 나타낼 때도 있으나 평년의 최고 기온은 거의 우리나라 여름의 최고 기온과 같으나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하므로 느낌은 실제온도보다 상당히 선선하게 느껴진다.

강우량별 분포상황 (년평균)

254mm 이하	39%
254mm~381mm	21%
381mm~508mm	11%
508mm~635mm	9%
635mm~762mm	7%
762mm~1,016mm	6%
1,016mm 이상	7%

호주는 북에서 남으로 연하는 큰 산맥이 있기 때문에 비가 산맥의 동쪽에 많이 내리고 서쪽과 남북 및 중앙부는 강우량이 적어 380mm 이하의 강우량을 보이는 사막과 같은 지역이 국토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4. 가축동태

(개면 양)

뉴사우스웨일스주 39%, 서오스트라리아주 19%, 빅토리아주 17%, 퀸스랜드주 12%, 남오스트라

리주 38%, 농촌 17%로서 북에서 남으로 연하는 동해안지대에 모여 사는 도시 국가이다.

③ 인구의 구성 (66년 현재)

유럽계 98.4%, 기타 1.6%로서 유럽계가 거의 전부이며 근년엔 아세아인들도 이민을 허하나 그곳 이민성에서 엄중히 심사한다고 한다.

단위 : 1,000두

가축별	1965	1966	1967	1968	1969
면양	107,622	157,563	164,237	166,912	174,602
1살이하	34,758	28,890	34,302	37,750	37,209
1살이상	135,864	128,673	129,935	129,162	137,393
소	18,816	17,936	18,270	19,218	20,598
종모우	369	351	367	381	400
유용우	4,747	4,598	4,528	4,470	4,258
육용우	13,699	12,987	13,375	14,431	15,940
돼지	1,660	1,747	1,808	2,056	2,253
종모돈	37	36	36	38	38
번식빈돈	252	252	263	305	320
기타	1,372	1,458	1,504	1,712	1,895
말	520	—	479	—	—
닭 (수)	52,000	67,000	76,000	80,000	95,000

리아주 11%, 기타지역 2% 정도로 분포사육되고 있다.

(내 소)

퀸스랜드주 37%, 뉴사우스웨일스주 24%, 빅토리아주 19%, 기타지역 20% 정도로 분포 사육되고 있다.

(돼지)

뉴사우스웨일스주 31%, 퀸스랜드주 24%, 빅토

리아주 19%, 남오스트리아주 12%, 기타지역 14% 정도로 분포 사육되고 있다.

(배 닭)

뉴사우스웰스주 42%, 기타지역 58% 정도로 분포 사육되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가축의 사육지대는 비가 많이 와서 사람이 살기 좋고 초지를 조성하기 좋은 뉴사우스웰스주, 빅토리아주, 퀸스랜드주 등의 해안지방에 집중적으로 분포 사육되고 있다.

5. 국민의 식생활 구조

식품구분	호주	한국	뉴기니아
전분식품	9.3%	15.4%	86.0%
유류 및 어류	13.0	7.5	0.6
곡류 및 두류	21.0	56.8	3.9
기타 과실류	15.0	2.7	4.3
청채	10.0	15.1	—
젓, 버터 및 계란	30.0	1.3	5.2
기타	1.7	1.1	—

이 표중 전분식품과 곡류는 거의 같은 전분성 식품으로서(두류는 다르지만) 한국은 일상 음식의 72%, 뉴기니아는 90%를 점하고 있는데 비하여 오스트리아는 30%밖에 안되며 특히 우리 축산인의 지대한 관심사인 축산물의 소비경향을 볼 때 어류가 포함되기는 하였지만 여하튼 육식이라는 같은 범주내에 넣고 계산할 때 한국은 겨우 9%, 뉴기니아는 6%인데 반하여 호주는 43%로서 식생활의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 □□

협성가축약품공사

가축예방약 · 치료제 · 사료첨가제
 소독약 기타 일체 총판
 서울 청량리역전 오스카극장앞

협성가축병원

가금진료전문
 서울 청량리역전 오스카극장앞

(92) 7779

(92) 7779

값싸고 영양많은.....

위생적인 닭고기가 식품점 · 정육점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